



유상철

임수경

리룡

스즈키 시즈오



공동주택 대부분이 고층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주거 환경에서 사람들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병들어 가고 있음.

- **일본 열도 개조의 문제점** 일본 열도 개조라는 고도성장의 대가로 많은 문제가 발생함.
- **윤리 경영** 35년 전 설립된 일본의 윤리연구소는 윤리에 따른 경영을 추진하고 종말을 맞이한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하자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음.

**Keywords**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신산업, 경영 혁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윤리적 경영

**정책 제안 및 시사점**

- 전력은 실증 모델 없이 현실화가 쉽지 않은 보수적 영역임. 한국은 우수한 실증 모델을 많이 확보하고 있으므로 중국, 일본과 협력해 저탄소 사회 실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임.
- 사회가 진보함에도 기업의 관리 모델은 과거에 머물고 있어 경영 혁신이 절실함.
- 앞으로 아시아의 도시들을 자연과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생동감 있게 살 수 있는 제주도 같은 도시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
- 한중일엔 세계의 경영을 변화시켜 긍정적 의미에서 세계시장을 제패할 수 있으며 이는 공동의 이익이 될 것임.
- 아시아를 재구축하고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데 청년들의 역할이 중요함.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정치·경제적 평가

**프리드리히나우만재단·아시아경제자유네트워크**

개회사	라스 안드레 리히터 프리드리히나우만재단 한국사무소 대표
축사	롤프 마파엘 주한 독일대사
사회	존 들러리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토론	세타풋 수티와르트 나루에퓏 태국 미래재단 대표이사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이다 케이스케 도쿄대학교 법정대학원 교수
정리	임성은 프리드리히나우만재단 한국사무소 부장

- 세계 총 생산량의 40%, 세계 무역의 30%를 차지하는 현존 최대 자유무역 블록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지난해 10월 체결되었다. 이 협정은 참가국과 한국을 포함한 비참가국 모두에게 많은 경제적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희망적 전망과 함께, 정치·사회적 도전 과제 또한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TPP는 기존의 무역장벽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낮춘다는 목표 외에도 환경, 지적재산권,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 조항 등과 같은 논란의 여지가 많은 분야들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다른 자유무역협정이 그렇듯 TPP 또한 미국의 지정학적 대아시아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 본 세션의 모든 토론자들은 자유주의 성향의 경제학자이기에 전반적으로 자유무역에는 찬성하나, TPP에 관해서는 서로 다른 관점을 갖고 있다. 특히 TPP의 향후 발전과 수용과정에서 세계 무역기구(WTO)가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점

-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간략하게 말하면, 모든 참가자들은 WTO에 관해 우호적이기는 하나, 권태신 원장과 이다 교수는 WTO의 진행이 더디다는 점에서 WTO 역할에 비판적인 대신 TPP에 대해 우호적이다. 반면 세타풋 박사는 TPP에 대해 유보적인 관점을 갖고 있으며, TPP와 같은 무역 특혜협정은 WTO의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 권태신 원장은 TPP 참가국이 시장의 확대로 인한 수출 증가와 소득 증대 혜택을 누릴 것이며, 수입 가격 하락과 한층 강화된 경쟁으로 인해 소비자 복지가 증대될 것이라 내다봤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TPP가 발효될 경우, 미발효 때 대비 2023년 TPP 참가국 국내총생산이 0.5~8.1% 더 증가할 전망이라고 한다.
- 이다 교수는 오바마 대통령이 강조한 바 있는 TPP의 규칙 제정적 측면에 대해 언급했다. 국제



라스 안드레 리히터      볼프 마피엘      존 들러리      세타퓏 수티와르트 나루에트      권태신      이다 케이스케

관계에서는 어떤 규칙이 존재하는지, 누가 그런 규칙을 제정하는지가 중요하며, 그런 점에서 TPP가 갖는 규칙 제정적 측면은 의미심장하다는 것이다. TPP는 미국의 '아시아 회기' 정책이라는 큰 전략의 일환이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전쟁에 몰두하느라 미처 아시아에는 제대로 신경을 쓰지 못했다는 인식이 있다. 그러므로 TPP는 오바마 정부의 대아시아 정책을 수행하는 도구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 안보를 미국에 의존해야만 하는 일본은 TPP를 통해 오키나와에 배치한 미 해군을 오키나와 밖에서 재배치하는 문제를 비롯해서 최근 미국과 빚었던 일련의 마찰들을 무마시

키고자 했다. ■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일본은 TPP 수혜를 크게 누릴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 이익은 국내총생산량의 2.6%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잠재성장률이 0.5%에 불과한 일본에게 엄청난 경제적 보상이다. ■ 세타퓏 박사는 TPP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같은 메가 지역자유무역 체제보다 비차별 원칙의 다자간 무역체제를 선호한다. 그는 지역을 전체로 보느냐, 아니면 역내 개별 국가의 입장에서 보느냐로 구분해 TPP 찬반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역내 몇몇 개별 국가들은

TPP하의 특혜적 시장 접근으로 이익을 볼 수 있겠지만, 지역 전체로 볼 때, 특히 개도국들은 오히려 WTO하의 무역자유화가 진전될 경우 더욱 큰 이익을 볼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한 근거는 다음 세 가지다. 첫째, TPP는 특혜무역협정이기에 일반적으로 무역 전환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둘째, TPP는 단순한 무역협정이 아닌 다른 중요한 사안들(투자자 보호, 지적재산권 문제, 노동과 환경 기준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이들 대부분은 개도국 이해에 반드시 부합되지 않는다. 셋째, 개도국은 협상력이 부족하다. 미국이 TPP 협상 과정에서 취한 순차적 협상 방식과 기준, 분쟁 해결에 관한 협정의 몇몇 조항 등에서 이 같은 협상력 부재가 드러나고 있다. ■ TPP는 분명 참가국 간 무역을 크게 증진시킬 것이다. 그러나 참가국의 개별 이익은 나라마다 큰 차이가 있을 것이다. TPP는 비참가국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일본의 경우 TPP는 미국과의 관계를 복원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2009~2010년 미일 관계는 여러 사안에서 마찰을 빚었으며, 미 해군이 특히 중시하는 오키나와 미 해군 기지 이전 문제가 이에 포함된다. 오키나와 기지 이전 문제는 몇몇 미국 정계 인사들을 격분케 했으며, 미일 양자관계에 위기를 초래한 바 있다. 하지만 TPP를 통한 미일 동맹 강화는 또 다른 대가를 치르게 된다. 특히 TPP 비참가국들이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 푸틴은 TPP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다. 중국은 러시아처럼

대놓고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TPP에 대해 회의적인 관점을 갖고 있다. ■ 무역 측면에서 보면, TPP와 다른 무역협정들 간에는 상충 효과가 들어 있지는 않다. 일본과 아세안 국가들은 여전히 RCEP에 대한 협상을 충실히 진행하고 있으며, 이제껏 어느 나라도 RCEP에 등을 돌리지 않았다. RCEP의 무역 개방화 정도는 TPP하의 개방화 정도보다 불가피하게 낮을 것으로 보이나, 그래도 RCEP을 추진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결국 궁극적 목표는 기존의 모든 APEC 회원국을 포함하는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 창설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TPP를 확장시키거나, TPP와 RCEP을 통합시켜 이루어질 수 있다. 현시점에서는 이 둘 중 어느 것이 더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WTO의 경우 한편으로는 세계 무역체제에 바람직한 영향을 끼쳐왔다고 할 수 있다. 법적 측면에서 WTO는 가장 발전된 무역체제이며, 매우 중요한 분쟁해결 절차를 가지고 있다. 반면에 WTO는 무역 협상을 촉진하는 데 거의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으며, 도하 라운드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지 못했다. 이로 인해 WTO 체제 자체가 실패한 것이 아닌가 하는 큰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 세타퓏 박사에 따르면, 태국은 TPP 비가입으로 가장 큰 손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질적 손해는 그리 크지 않다. 2030년까지 누적 국민총생산의 0.9% 또는 연평균 성장률의 0.06% 이하 정도에 해당될 것이다. TPP 가입에서 오는 대부

분의 잠재적 이득은 무역에 기인하는데, 태국이 TPP 가입으로 인해 기대할 수 있는 시장의 확장은 그리 크지 않다. 이는 우선 태국이 이미 TPP 가입국 중 75%에 이르는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지 않은 국가는 미국, 멕시코, 캐나다인데 이들 국가를 모두 합치면 태국 수출의 10% 정도를 차지한다. 둘째, 태국이 수출하는 상품 대부분에 대한 미국의 관세는 그다지 높지 않다. 셋째, 말레이시아를(10년간 자동차 관세 0%) 척도로 삼는다면 TPP 체제하에서 태국의 주요 대미 수출 상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와 비관세 장벽 축소는 가까운 시일 내 이루어질 것 같지 않다. 오히려 해외 직접 투자로 인한 간접적인 혜택이 더 클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평가는 쉽지 않다.

■ 세타풋 박사는 보이지 않는 비용에 더 우려를 나타냈는데, 특히 투자자국가소송제도가 그렇다. TPP의 투자자국가소송제도는 미국 기업에게 유리한 국제중재제도를 담고 있다. 미국통상 대표부는 웹사이트에 “미국은 한 번도 투자자국가소송에서 진 적이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법적 측면에서 형평성과 동등한 대우라는 문제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기업이 중재법원에 과도하게 소송을 제기하는 문제는 이미 미국 국내 법원에서도 우려를 낳고 있다.

■ 세타풋 박사는 WTO가 더 많이 발전할수록 세계적으로 훨씬 더 큰 이득을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TPP나 RCEP 같은 메가 지역자유무역협정들은 다자주의 무역 체제를 약화시킨다. WTO 도하 라운드에서 협상을 끝맺지 못했기에 메가 지역무역협정에 참여했다고 하지만, 동시에 여기에 참여함으로써 도하 라운드 협상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WTO가 사실상 실패했고, 메가 지역무역협정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믿는다 하더라도, RCEP이 더 나은 대안이다. 왜냐하면 RCEP은 TPP에 비해 비교적 사안이 훨씬 덜 포함되어 있고, 동시에 다자주의 시스템적 요소를 가장

잘 살리고 있기 때문이다(WTO 분쟁해결 절차,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등). RCEP은 최소한 TPP하에서 국가들이 누리고 있는 제한된 협상력을 제고시키는 데 일조할 것으로 본다.

■ 권태신 원장에 따르면, 한국 경제를 지속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수출이다. 한국의 수출 의존도(수출/국민총생산량)는 2013년 기준으로 53.9%에 이르는데, 이는 OECD 국가 평균인 28.7%의 거의 두 배 수준이다. 한국의 해외무역 의존도(수출+수입/국민총생산량)는 2013년 기준 102.8%로, OECD 평균인 57.7%보다 훨씬 높다. 그러므로 한국은 TPP와 같은 국제협정을 통해 무역을 확장해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은 TPP 참가국이며, 다양한 제조업 분야에서 라이벌인 일본과의 경쟁에서 뒤처질 우려가 있다. 더구나 TPP는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을 추구하고 있으며, 반부패, 제도의 투명성, 투자와 지적재산권 보호, 노동과 환경 관련 규칙 등과 같은 국제 규범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요건으로 인해 개도국이 사실상 국내 법과 제도를 개혁하고, 국제 기준을 수용하게 된다. 이는 장기적으로는 개도국 제도 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 Keywords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투자자국가소송제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

## 한국 뷰티산업의 글로벌화 방안

### 한중지역경제협회

사회	이상기 한중지역경제협회 회장
발표 및 토론	진선미 대한민국 국회의원 장혜숙 한국뷰티플래너협회 회장 한미영 세계여성발명기업인협회 회장 양선길 쌍방울 대표이사 위천더 뉴화청국제여행사 대표 뚜더리 국제신에너지주식회사 회장 자오레이 중박성주식회사 수석집행관 청슈치 베이징환경연구원유한공사 총경리
정리	채하연 중앙대학교 대학원 강사

#### 진선미

• 발표자들의 고견을 경청함으로써 한중 뷰티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입법가로서 도움이 되는 정책 수립을 위해 노력하겠음.

#### 양선길

중국 관광객들의 소비 흐름과 화장품 '원료'의 가치에 주목  
• 저가 항공을 이용하는 4선 이하 도시 중국 관광객들의 한국 방문 증가가 예상됨.  
• 한류 문화 콘텐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20~30대 젊은 층 방문 비중 증가로 의류, 중저가 상품에 대한 수요 증대와 사후면세점의 성장이 예상됨.  
• 코스메슈티컬(화장품과 의약품의 합성어)과 안티에이징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기능성, 특수 화장품의 수요 증대에 따라 기능성

원료의 경쟁력이 중시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특히 출원 가능성 화장품의 비중 증가함.

#### 청슈치

• 헬스테라피 산업이 새로이 각광을 받고 있음.  
• 새로이 구축한 환구연맹의 플랫폼을 통해 한국 뷰티산업이 성장하기를 희망함.

#### 한미영

여성의 아름다움, 화장품과 지식재산의 상호 관계  
•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에 따른 화장품 소비 증가, 소득 수준 향상에 따른 고가 프리미엄 제품군에 대한 수요 확대, 남성 화장품과 기능성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새로운 제품 창출 같은 성장 요인에 힘입어 한국의 화장품산업은 지속적으로 성